

# 여수시, 섬박람회 발판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도약

### 크루즈 투어·마이스 산업 양대축 체류형 관광 패러다임 대전환 박차 ‘섬-기업 상생 관광 프로젝트’ 가동

여수시가 올해 성대하게 막을 올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복합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한다. 천혜의 365개 섬을 관광 전략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크루즈 투어와 고부가가치 MICE(마이스) 산업을 양대 축으로 삼아, '스쳐 가는 곳'이 아닌 '머무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5월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섬과 바다, 그리고 도심을 유기적으로 잇는 새로운 해양 관광 패러다임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박람회 기간 다채로운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기존 도심 위주의 인프라를 섬으로 확장, 관광객들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머무는 관광'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섬-기업 상생관광 프로젝트'를 가동, 금오도와 낭도를 비롯해 거문도 등 주요 섬들을 묶어 하나의 거대한 관광권으로 재편하고 있다. 비령길 아웃도어 프로그램, 섬 위케이션, 카약 등 해양 레저, 특색 있는 마을 축제 등 로컬 콘텐츠를 가동해 단순한 1회성 체험을 넘어 지역 소비와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바닷길을 통한 글로벌 관광객 유치도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여수는 제주를 거쳐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동북아 크루즈 노선의 핵심 기항지로 급부상하며, 최근 5천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13만급 초대형 크루즈 '아도라 매직시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기반으로 한 복합해양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사진은 여수항에 입항한 중국 대형 크루즈 '아도라 매직시티(Adora Magic City)' 호 모습. (여수시 제공)

티호'가 입항했다. 이들은 전남관, 이순신관광, 오동도는 물론 천

사벽화마을과 웅천천수공원 등 도심 곳곳을 누비며 지역 경제 전반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시는 향후 대규모 크루즈 입항에 대비해 전담 안내소 설치, 셔틀버스 운영 등 맞춤형 환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빈틈없는 교통·안전망을 확립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최근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마이스 산업도시 부문 1위를 휩쓰는 패가를 달성했으며, 그동안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다지고 한국관광공사, 전남관광재단 등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 연평균 1천200여건의 행사를 유치하며 약 900억원 규모의 압도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만의 독보적 자원인 섬과 바다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차별화된 체류형 섬 관광 생태계와 크루즈·MICE 산업을 융합 육성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복합해양관광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고흥군 '미래형 첨단 축산 환경' 구축 잔결음

### 도덕면 신양리 일원...ICT 단지 조성 18~22일 접수...축사 현대화 등 지원

고흥군이 미래형 첨단 축산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대표 브랜드인 '유자골 고흥한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단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5월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축산 단지 조성을 통해 사육의 규모화·집단화를 꾀하고, 청년 농업인과 관외 농가의 유입을 유도해 지역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규모는 총 26동으로, 단지는 도덕면 신양리 일원에 조성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약 4천220㎡(축사 면적 약 670평)의 부지를 배정받아 한우(비육우·번식우) 사육용 첨단 축사를 신축하게 된다. 군은 입주 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을 연계해 스마트 장비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축사 부지는 5년간 사용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50세 이하 고흥군민 또는 사용 허가 전까지 고흥군으로 전입이 가능한 기존 축산농가, 청년농, 관외 농가 등이다.

다만 기존 축사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운영 계획의 구체성, ICT 활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서류 심사(100%)를 거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입주 희망 농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고흥군 축산정책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에 고흥한우스마트팜영농조합법인이 맡는다. 고흥군 관계자는 "스마트축산 ICT 단지는 청년농 유입을 이끌 지역 축산업의 핵심 성장 거점"이라며 "체계적인 운영과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연계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화순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10월까지 특별단속

### 목재·조경업체 등 유동 관리 점검

화순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건강한 산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유동 질서 확립에 나선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부적정 취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사진> 이번 단속은 숲수염하늘소 등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 생산업체, 조경업체, 제재소, 찜질방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고 유통하는 모든 업체와 개인이다.

군은 현장 밀착 점검을 통해 ▲소나무류 원목 취급 및 적치 수량 ▲생산·유통 관리대장 비치 여부 ▲미감염(생산) 확인증을 통한 원목 출처 등을 확인하며, 적치된 화목(뿔감)에 매개충 집입공이나 탈출공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핀다. 또한 단속 결과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유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관련 업계와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신청

### 신청 시 7월부터 18개월간 郡, 1인당 최대 16만원 지급

담양군은 5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5개 내외

의 지자체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은 열악한 예산 상황과 수혜 복구비 부담, 기본소득 국도비 분담구조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신청에 나서지 못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위기에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재정 여건을 최대한 정비해 공모 신청을 완료했다. 군은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군민 대상 설문 조사를 진행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

모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또한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금과 세출 구조 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군민 약 4만5천400명에게 1인당 월 16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천310억원이 소요된다. 임순미 참여소통실장은 "담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양교육지원청은 최근 광양중동중학교 1학년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광양탐구' 체험학습 첫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은 포스코 park1538에 방문해 해설을 듣고있는 학생들. (광양교육지원청 제공)

## 광양교육지원청, '광양탐구 체험학습' 성료

광양교육지원청은 "최근 광양중동중학교 1학년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광양탐구' 체험학습 첫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체험학습은 지난해 교육지원청이 자체 개발한 고시 외 과목 '광양탐구' 교육과정에 기반해 마련됐으며, 학생들은 '산업의 길' 코스를 따라 포스코 park1538 홍보관과 광양농업기술센터스마트팜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산업 발전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특히 지역 마을학교인 사라실예술촌과 협력해 현장 운영 및 안전 지원 체계를 강화했으며, 지원청은 오는 7월10일까지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생태·산업 등 주제별 코스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김여선 교육장은 "학생들이 지역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 교사들의 운영 부담을 덜고 지역 기반 교육과정이 활성화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 장성미식산업진흥원 7월 개원 이달부터 두달간 시범 운영

장성군은 미래 외식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정식 개원을 앞두고 다채로운 시범 운영을 펼치며 '미식도시 장성'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7월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개원을 목표로 이달부터 두달간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진흥원은 지상 2층, 1천133㎡ 규모로 조리·베이커리·카페 교육장과 쿠킹 스튜디오 등을 두루 갖춘 외식 창업 특화 교육시설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실무 중심의 '1일 강좌'로 진행된다. 5월에는 장성 오점밥상을 비롯해 썩썩버거, 썬타코, 장성레몬 티라미수 등 특색 있는 메뉴 만들기가 마련되며, 6월에는 장성 라자나, 죽순밥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바리스타 과정도 총 4회 운영되며, 수업료는 1만원이다. 군은 이번 시범 운영의 수요와 반응을 분석해 정식 프로그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 개원을 기념해 전국 소비자를 겨냥한 '치유밥상 체험 프로그램'도 첫선을 보인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한 차별화된 미식 관광 콘텐츠로 장성만의 개성을 살리고, 외식산업의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흥군 수출 업무협약(MOU) 체결식. 2026. 4. 28.(화)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2층 인화관. 장흥군·장남진장흥지거래지원센터·케이엔지글로벌

## 장흥군, 농수산물식품 604만달러 수출 성과

### 제4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성료 유럽 등 10개국...1천여만원 기탁도

장흥군이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적인 수출 불확실성 속에서도 6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해외 수출 성과를 거두며 지역 농수산물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농수산물식품 수출 5천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4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개국 11명의 바이어가 참석해 지역 업체들과 1대1 맞춤형 상담을 가졌다. 그 결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4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7개국

과는 전년 대비 175% 급증한 204만달러의 실질적인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중국 청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 매장을 중심으로 장흥산 김, 청국장, 막걸리, 화장품 등 다채로운 품목이 세계로 뻗어나갈 전망이다. 아울러 협약사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수미지인은 쌀과자, 바다채소는 미역세트, 케이엔지글로벌은 성근, 미풍은 쌀, 무산김과 세화제이엔제이식품은 김세트 등 총 1천1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각각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장흥 농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마케팅과 패키징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 개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 기자